

딸 장학금·사모펀드 투자 의혹 치열한 공방 예상

■조국 후보자 청문회 쟁점과 전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이달 6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청문회장을 달궂고 쟁점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핵심 쟁점은 크게 나눠 ▲딸 논문과 장학금 등 입시 의혹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가족이 보유한 옹동학원 관련 의혹 등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반박 또는 부인한 바 있어 청문회장에서 불꽃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딸 논문 의혹, '2주 인턴' 의혹은 제1저자 논란=조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의 논문 논란은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

조 후보 간담회에서 대부분 부인

가족 운영 학교법인 옹동학원

공사비 청구 소송도 논란

이다. 조씨가 한영외고 2학년 시절 단국대의 과학연구소에서 약 2주 동안 인턴을 했는데, 이후 대한병리학회 영문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딸이 연구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 것 같다"고 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 "조씨가 제1저자에 해당하는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논문 자진 철회를 권고했다.

또한 당시 이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모 교수의 아들과 조씨는 한영외고 동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뿐 아니라 장 교수 아들이 조 후보자가 교수로 있던 서울대 법대에서 교생 인턴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조 후보자가 자녀들의 '인턴 품앗이'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조씨가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국제조류학회 발표 초록의 제3저자

로 등재된 사실도 논란이다.

◇딸의 부산대·서울대 장학금 수령 논란=조씨의 부산대 의전원의 장학금 수령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조씨가 2차례 유급을 했음에도 2016년~2018년 6학기 연속해 장학금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곳은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사적으로 만든 '소천장학회'다.

조 후보자는 "부산대 의전원 발표대로 지급에 불법은 없었다"며 "부산의료원장, 주치의 선정은 민정수석 권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씨가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한 이후 2학기 동안 총 804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사실도 문제가 됐다.

게다가 서울대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 '관약회'가 주는 장학금은 조씨가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경위를 두고 거센 논란이 일었다.

◇사모펀드 의혹·가족펀드·관급수주 논란=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2017년 7월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도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다. 이 사모펀드의 투자자는 총 6명인데 조 후보자 배우자와 두 자녀가 10억5000만원, 배우자의 동생(조 후보자 처남)과 두 아들이 3억5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7년 3월 배우자가 동생에게 3억원을 빌려주고, 동생이 코링크PE 지분을 200배 비싸게 매입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사모펀드가 사실상 '가족펀드'이며 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인사청문회 개최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세 회피용 수단이 아니냐는 등의 의구심을 낳았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며 "5촌 조카가 하우펠리 귀국해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옹동학원 의혹, '위장소송·재산탈취' 논란=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옹동학원을 둘러싼 의혹도 현재 조 후보자 일가의 재산 문제와 직결된 만큼 적잖은 주목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 조권 씨는 앞서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부도가 나자 연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채무를 벗었다.

이후 조권 씨는 2005년 말 코바씨앤디라는 회사를 세운 뒤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옹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당시 약 52억원)을 배우자에게 10억원, 코바씨앤디에 42억원씩 양도한 뒤 옹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옹동학원 측은 변론을 포기했고 조권 씨 측은 승소 판결을 받아 이를 두고 '위장 소송'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소송은 2017년에도 벌어졌다.

이를 두고 조 후보자 일가가 부친의 빚 42억은 갚지 않고 51억원 채권은 인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 후보자는 "동생은 학교 공사대금 채권을 갖게 됐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학교에 대해 가압류 등 조치한 적 없고 (소송은) 채권 확인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문 대통령, 주말 숙고 후 9일께 조 후보자 임명할 듯

여야 청문회 합의로 늦어져

여야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열기로 합의하면서 문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단할 시점이 영향을 받지 주목된다.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6일까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적 절차로만 따지면 문 대통령은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국 정국'을 더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른바 주말임에도 이르면 7일에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이자 청문회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6일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면서 조 후보자를 바로 다음날인 7일에 임명하기는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

이 나온다.

당장 청문회가 열리면 조 후보자를 상대로 검증이 벌려 온 야당과 이에 대응하는 여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혹의 상당 부분을 해명하기는 했지만 이후 조 후보자의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수행한 인턴십 경력이 부풀려진 정황과 여기에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다.

여기에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두고 조 후보자가 여론이 납득할만큼 소명하지 못한다면 기자간담회 이후 조 후보자의 임명에 찬성하는 여론이 늘어나고 반대하는 여론이 줄어드는 흐름에 반전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가 열린 다음 날 곧바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속전속결'을 택한다면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간주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하더라도 청문회 경과와 이후의 여론 변화를 살피는 최소한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청문회가 끝난 후 여야가 청문회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시점에서 정국의 핵(核)이라 할 수 있는 조 후보자의 청문회보고서 채택 여부가 단시간 안에 결정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여야가 청문회보고서 채택을 조율하는 동안 임명한다면 이 역시 야당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청문회 직후 주말인 7일 혹은 8일에 조 후보자를 임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가 나온다.

결국 주말 사이에 '숙고'의 시간을 보내고 9일에 조 후보자를 임명해 10일 국무회의에 출석하도록 하는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호남미술계 큰 족적 남기고 떠난 김종수 화백



(281) 미술교육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지만 예술계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 등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가 다른 점 중의 하나는 대학교수라는 직함을 가질 때 더 인정을 받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전문 연구자나 직업 작가, 전업화가보다 대학에 적을 두었을 때 더 높이 평가를 하는 분위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나, 더러 대학을 그만두고 전업 작가나 전업화가로 새 출발 하는 것이 화제가 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



김종수 작 '담양호 풍경'

며칠 전 세상을 떠난 김종수 화백(1940~2019)은 화가로서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작가로서의 화려한 조영보다는 조선대 미술대학교수로 미술대학장을 역임했던 호남미술교육의 큰 스승으로 기억된다. 미술대학으로는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조선대학에서 오지호, 임직순 등 가라성 같은 대가들이 한국화단을 이끌면서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주력했던 전통대로 김종수 화백도 미술교육의 큰 족을 맡아 왔던 것이다.

김종수 화백의 '담양호 풍경' (1992년 작)은 오랫동안 풍경화를 그려온 작가답게 야외 스케치 현장에서 얻은 서정을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정통 유희의 느낌이라고 할까. 시대적 유행에 편승하거나 실험성에 도전하지 않으면서 화화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했던 작가의 강렬함과 섬세함이 조화된 화면이 특징적이다.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관·미술사 박사>

인상주의와 자연주의를 병합시킨 화면은 변화하는 빛의 찰나를 포착한 산세의 대담한 색면과 호수의 깊은 심연에서 '은둔자적' 체질과 사색적인 성격'으로 기억되는 작가의 고유한 분위기가 엿보인다. 담양호의 한 모퉁이에서 낚시대를 드리우고 있는 인물의 조용한 숨죽임이 역설적으로 자연에 한 점 활력을 준다. 이승을 떠난 화가는 어떤 빛깔의 다른 세계를 만날까, 생각해보며 고인의 명복을 빌어본다.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태양광발전소 선택 순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당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효동 665-29)

한일솔라에너지